

3년간 1천억대 국책사업 유치 목표...6개월만에 73% 달성

이정현 원장 취임 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활기

공모 사업 727억 유치...300억 예산 확보

벤처창업학교·3D프린팅 지원센터 추진

지난해 11월 취임한 이정현(57)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3년간 1000억대 국책사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며 "기존과는 다른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보여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사무국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기획·콘텐츠개발 본부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진흥본부장, 전주대학교 문화산업대학장 등을 역임한 콘텐츠 개발 전문가로 꼽힌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가시적 성과를 냈다. 23일 진흥원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공모한 사업들이 대거 선정되며 올 상반기에만 총 국·시비 72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이 세운 목표 중 70% 이상을 반년만에 달성한 셈이다. 또한 올해 사업

예산도 지난해(150억원) 대비 2배 규모인 300억원을 갖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SW융합클러스터(320억) ▲3D프린팅 지역특화 종합지원센터(17억) ▲지역SW융합제품상용화지원(18억) ▲K-ICT산업단지 클라우드(14억) 등 4개 사업을 따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125억) ▲지역기반형 게임산업육성(150억) ▲지역특화문화콘텐츠개발(20억) 3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청 ▲스마트벤처창업학교(58억),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5억) 등 총 9개 사업을 확보했다.

특히 진흥원은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콘텐츠코리아

랩,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등을 통해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분야 창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청년들에게 예산이 지원된다.

주목할만한 사업으로는 3D프린팅 지역특화 종합지원센터다. 올해말까지 교육장, 체험실, 전시실, 장비실 등 시설을 조성하고 스마트가전제품 3D프린팅 상용화, 전문인력양성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역기반형 게임산업육성사업은 '광주 글로벌게임센터'를 만들어 인디 모바일게임, VR게임 과정 등을 교육하고 글로벌시장 개척을 위한 지역기업 현지화를 지원한다.

이정현 원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청의사업단, SW융합사업단 등 전담조직을 구성할 예정이다"며 "인력재배치, 신규인력 보강을 시작으로 기업·청년조직·대학생 등 주요사업 수요자에 집중 홍보해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23일 올 상반기 국가공모사업에 대거 선정되며 727억원 국·시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진흥원이 입주한 광주CG센터. 김진수기자 jeans@

조선업계 지각변동...현대삼호중 2위 도약

현대삼호중공업이 국내 조선 2위로 도약하는 등 전세계 수주 가뭄으로 조선업계 전반에 지각 변동이 일고 있다.

중형 조선사들이 악조건 속에도 꾸준히 실적을 올리는 반면 기존 대형 조선업체들이 좀처럼 수주를 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국내 대형 조선업체들의 '수주 절벽'이 지속되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전 세계 조선 1~3위 독식 체제는 올해로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량은 58만1000CGT(표준화물선 환산수)였다. 이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21만4000CGT로 1위였고 현대삼호중공업(16만9000CGT),

대우조선해양(16만8000CGT), 현대미포조선(3만CGT) 순이었다.

삼성중공업과 한진중공업 등은 이 기간 수주가 전혀 없었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업체들만 따진 시장 점유율은 현대중공업이 36.8%, 현대삼호중공업과 대우조선이 각각 29.1%와 28.9%로 3강 체제를 구성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이 국내 조선업계 2위까지 오른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지난해 국내 조선업체 시장 점유율은 현대중공업(26.2%), 대우조선(20%), 삼성중공업(18.8%) 순이었으며 현대삼호중공업(18.1%)과 현대미포조선(8.1%), 한진중공업(0.5%)이 뒤를 이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검정·주황·노랑

토마토 色을 입다

전남농기원 품종 개발

앞으로 다양한 색깔의 토마토를 맛볼 수 있게 됐다.

전남농업기술원은 23일 빨간색뿐 아니라 검정, 주황, 노랑, 청색 토마토 신품종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마토는 색깔에 따라 성분이 다르다. 빨간색의 리코펜은 심혈관계 질환예방, 검은색의 안토시아닌은 성인병 예방, 노란색의 베타카로틴은 면역력 강화, 녹색의 클로로필은 피로 해소, 흰색의 알리신은 독소배출 해독 작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농업기술원은 각종 색깔의 토마토 신품종 개발이 완료되면 품종보호출원은 한 뒤 농업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서종분 연구사는 "국내 토마토 소비 트렌드에 맞게 새로운 품종을 개발·보급하면 농가소득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희기자 golee@

광주국제영화제 좌초 위기

내부 갈등·광주시 지원 중단...6월 개최 불투명

광주국제영화제가 심각한 내부 갈등에 다 광주시의 지원도 받지 못해 6월 개최가 불투명하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광주시로부터 2억 7000만원을 받아 행사를 치르고 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지원이 미뤄지고 있다. 정산 서류는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정환담 조직위 이사장이 A상임이사가 공금을 유용하고 서류를 빼돌렸다는 경찰에 고소하면서 갈등이 커져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A상임이사의 절도 혐의는

무혐의 처리됐지만, 정산에 필요한 서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데다 정 이사장이 검찰에 항고해 여전히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조직위 측에 정산서 제출을 촉구하는 공문을 5차례나 보내기도 했다.

조직위의 갈등으로 광주시의 지원 중단은 물론, 영화제 준비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영화제 지원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해놓은 상태다.

광주국제영화제 측은 공모를 통해 국내외에서 500여편의 작품을 받았으나 공모

사 선정조차 못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국제영화제지원사업에도 지원했지만, 오건 미달로 탈락했다. 영화제를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프로그래머들도 사실상 월급을 받지 못한 채 재능기부로 영화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갈등을 이유로 16년 전통의 광주국제영화제가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일각에서는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영화제 관계자는 "현재 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는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어 사실상 행사를 개최할 능력이 없다"며 "공모를 통해 민간단체를 뽑아 영화제의 명맥을 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송의정 국립광주박물관장 부임

신임 국립광주박물관장에 송의정(56·사진) 전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장이 부임했다.

송 관장은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립박물관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국립부여박물관장, 국립김해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장 등을 거쳤다. 재임 중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과 국



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을 지내며 국립박물관과 문화재청 사정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시절 신창동 유적(사적 375호) 발굴에 참여했으며 해남 장고봉 고분, 해남 용일리 용운고분, 보성 동촌리 고인돌 등을 조사한 이력이 있다.

김용희기자 kimyh@

세월호 특조위 존립 위기

개정안 19대 국회 폐기...20대 국회서도 진통 예상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폐기되면서 특조위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됐다.

야당은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곧바로 개정안을 다시 내겠다고 버티지만, 올해 6월 말까지 활동할 수 있다는 여당의 반대가 완강해 특조위 활동 연장은 20대 국

회에서 진통을 거듭할 전망이다.

23일 세월호 특조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특조위 활동 시한을 올해 6월 말로 보고 7월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정부·여당이 6월 말에 특조위 활동이 끝난다고 보는 근거는 세월호 특별법이 지난해 1월 1일 시행됐다는 점이다.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규정했다. 이 기간 활동

원료가 어려우면 특조위 의결로 활동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즉 특조위의 최대 활동 기간인 1년6개월이 되는 시점이 올해 6월 말이라는 게 정부·여당의 판단이다.

반면 특조위와 야권은 특조위 예산이 처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난해 8월 4일이 실제 활동시점으로 본다.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1일 이후에는 조사 업무를 수행할 사람도 예산도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주어진 때를 활동 개시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럴 경우 특조위는 내년 2월3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광신대학교 대학원 2016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안내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6. 5. 30(월) ~ 6. 8(수)
 ② 전형일 : 2016. 6. 10(금)
 ③ 합격자발표 : 2016. 6. 14(화) ④ 등록기간 : 2016. 6. 14(화) ~ 15(수)
 ※ 참고사항
 - 서류심사 관례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필기시험 해당학과 : 신학과(Th.M.), 신학과(M.Div.) - 실기시험 : 실용음악학과(M.A.)

모집학과 및 인원

대학원	학위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입학문의 ▶ 062) 605-1115, 1024, 1021

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서양새마을금고 양림지점 및 복지관 신축공사 (건축 및 소방)
 나. 공사현장 :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73 (양림동)의 1필지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이내(계약체결 시 별도 협의)
 라. 공사개요 : 지상5층, 연면적 560.92㎡, 철근콘크리트구조 마. 공사내용 : 건축공사 및 기계설비, 조경, 부대공사, 부설주차장 조성공사, 소방공사
 바. 수요(주관)기관 : 서양새마을금고
 사. 추정가격 : ₩1,132,562,000원(부가가치세포함)

본 공고문의 전문 및 붙임문서 등은 서양새마을금고 홈페이지(www.sybank.co.kr)의 공지사항에서 직접 확인하여 하며, 다른 경로(입찰정보사이트 또는 협회 등)를 통하여 전송받거나 열람한 내용이 본 공고와 상이 하는 경우, 당사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히 인터넷 접속 시 주소창에 직접 http://www.sybank.co.kr을 입력하여 우리금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본 입찰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양새마을금고 ☎062-671-5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9일

서양새마을금고

말하는 법 1%만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고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전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출 지원합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곡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정확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